

강원 고랭지, 해충 방제로 배추 생산 늘린다

농진청, ‘씨스트선충’ 퇴치로 배추 생산 약 1만4000톤 증가 기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서 해충 방제가 본격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뿌리에 피해를 주는 외래 해충 ‘씨스트선충’을 집중 방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진청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토착한 외래 유입 해충 ‘씨스트선충’의 토양 내 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여름철 배추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이다. 7~10월에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고도 600미터가 넘는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한다. 최근 들어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 연작장애, 토양 병해충 피해 증가 등으로 여름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씨스트선충 감염이 확

산하면서 생육 저하와 배춧속이 차지 않는 결구 불량 등으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재배를 포기하거나 휴경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2011년 강원도 태백에서 국내 처음 ‘사탕무씨스트선충’이 발생한 뒤, 2017년 정선에서 ‘클로버씨스트선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에는 총 2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씨스트선충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공적 방제 대상이다. 2024년 공적 방제 면적은 10년 전보다 약 4배 증가한 219헥타르(ha)에 달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씨스트선충 밀도가 높았던 강원 지역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한 결과, 훈증성 약제로 토양 소독한 재배지의 씨스트선충 밀도는 약 80% 감소했다. 다른 방법으로 백겨자, 기름무와 같

은 쪼갬작물을 재배하고 토양과 함께 같이엮으면 선충 밀도가 53%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진청은 씨스트선충 밀도 저감 효과가 입증된 토양소독과 쪼갬작물 재배를 올해부터 의무화해 휴경 없이 배추를 재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가 중심의 방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약제, 종자 대금, 방제기구 사용료 등 방제비(24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씨스트선충이 발생한 강원 5개 시군(태백, 삼척, 정선, 영월, 강릉) 배추 재배지와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밀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2025년 공적 방제가 필요한 316개 농가(551.3ha)를 선정했다. 올해 공적 방제 대상 재배지에서 씨스트선충 방제를 완료하면, 약 1만 4,000톤의 여름배추 추가 생산이 예측

된다. 재배기간 동안 기상 병해충 등 다른 문제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씨스트선충 밀도에 따른 재배지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결과다. 농진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강원도 여름배추 주산지 5개 시군 배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개선된 씨스트선충 방제법 설명회와 교육을 마쳤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함께 방제협의회를 열고, 농가 방제 지원 및 점검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월 중순부터 훈증성 약제 165톤과 쪼갬작물 종자 20톤을 배부한다. 농진청은 본격적으로 방제가 진행되는 5월부터 정기적으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각 농가 방제 추진 실적과 물품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 방제 지도 및 기술지원을 벌일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이 NH농협생명이 주최한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농협생명 연도대상 큰 성과

전북농협, ‘16명·3개 사무소’ 수상 쾌거

전북농협이 NH농협생명이 주최한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농협생명 전북총국은 8일과 9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37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농협이 사무소 부문 3개 농축협, 개인부문 16명의 직원이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연도대상은 한 해 동안 전국 최고의 생명보험 판매 성과를 거둔 농축협 사무소와 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이다. 이날 전북농협은 사무소 부문에서 △전주농협(임인규 조합장) △남원농협(박기열 조합장) △구림농협(김순용 조합장) 등 3개 농축

협이 연도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개인 부문에서는 △은상(1명) 조미경 과장대리(구림농협) △동상(1명) 김수경 지점장(남원농협 도봉지점) △우수상(1명) 박양심 지점장(남원농협 대산지점) △첼린지상(13명) 배성란 안숙희, 신경화(이상 남원농협), 이계순, 박현진, 김혜원, 이혜숙, 정승만(전주농협), 김보슬(동진강남농축협), 강형재(서군산농협), 박세홍(전주원예농협), 홍진이(지리산농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습조직 부문에서는 △남원농협 ‘노어’ 구성원(윤덕희 부지점장의 복양심, 배성란, 정미진, 홍순자)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4월부터 전국

연구자 대상 공동 연수회 개최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문가 교육이 본격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과 시립 연구기관 등에서 병해충 또는 잡초 분류·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농작물 병해충·잡초 분류·동정 공동 연수회’를 연다.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잡초학회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연수회는 농작물 병해충과 잡초 예찰을 강화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 공동 연수회에서는 국내 주요 병해충과 잡초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상을 진단하고, 유전자·영상 등을 활용한 진단과 방제법 등을 공유한다.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다룬 식물병, 해충 선충 3개 분야에 잡초분야를 추가했다. 4월 식물병과 선충, 9월 해충, 10월 잡초 등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1~2회는 식물병(4월 9~10일), 선충(4월 10~11일) 관련 내용을 다룬다. 공동 연수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학회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기타 문의는 농촌진흥청 해충잡초방제과(063-238-3289), 식물병방제과(063-238-3278)로 연락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딸기 신선도 기술 ‘진화’... 수출길 더 넓어진다

물리집·부패 줄이고 물류비 아껴... 한국 딸기 수출 5배 증가

우리나라 딸기 수출량이 최근 17년 사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보급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딸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딸기 신선도 유지 기술 고도화로 국내 딸기 수출량이 늘고,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열매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이 쉬운 딸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2019년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동시복합처리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딸기에 이산화탄소를 30% 농도로 3시간 처리함과 동시에 이산화염소 10ppm을 30분간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딸기 물러짐과 부패는 15~20% 줄고, 신선도는 저온(2℃)에서 3~4일(기존 7~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시에이(CA) 컨테이너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시에이는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대기 환경을 조절

함으로써 작물의 호흡을 억제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동남아 주요 수출국에 항공으로 운송하는 물량의 70%를 시에이(CA)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으로 수출하면, 물류비를 최소 2억 100만 원에서 최대 15억 9,9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농진청은 현재 딸기 수출단지 14곳에 동시복합처리기술, 2곳에는 시에이(CA) 컨테이너 기술 보급을 완료했다. 동시복합처리기술은 수출 형태에 따라 선박과 항공운송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시에이(CA) 컨테이너는 선박 수출에만 활용하고 있다. 동시복합처리기술과 시에이(CA) 컨테이너 기술을 함께 적용하면, 딸기의 품질은 온도(품온)가 높아지는 3월 이후까지도 신선도 유지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성왕성 과장, 전북농협 ‘이달의 농협인’ 선정

방역 관리·컨설팅... 농가 소득 향상에 앞장

전북 순정축협에서 근무하는 성왕성 과장이 전북농협 새로운 농협인상’ 3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농협은 9일, 전북농협 새로운 농협인상’ 3월 수상자로 순정축협 성왕성 과장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새로운 농협인상’은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핵심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신용사업 실적증대, 경제사업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농협구현에 공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성왕성 과장은 2010년 순정

축협에 입사하여 지도, 경제사업 업무를 담당,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제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산컨설팅 업무지식과 책임감으로 조합원 유대관계 형성 및 철저한 방역관리 지도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실익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만들고 가족질병 선제적 대응 등 가족전염병 차단 관련 공로가 컸다. /오상근 기자

김병진 신임 전북중소기업회장 취임

전북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오 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취임식은 제정목 전임 회장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병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0명이 참석했다. 김병진 회장은 △중소기업 현안 발굴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동개혁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공동사업 확대 △중소기업 수출관로 지원 △중소기업 사업장나눔재단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 침체, 인구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병진 회장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